

퀴바디스, 피시즈

- 페미니즘 평화 편: 정희진과 김성경의 대담 -

정희진*, 김성경**

이번 호는 <여성과 평화>라는 주제 아래 여성학 박사이자 평화연구자인 정희진에게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여성, (탈)분단,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이 질문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했다. 정희진과 김성경은 2023년 9월 25일 만나 6시간에 걸쳐 대담을 이어갔으며, 이후 김성경이 정리한 글을 정희진이 수정하여 다시 썼다.

김성경: 선생님과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선생님은 여성학 분야에서 수많은 책을 기획하거나 집필하셨어요. 특히 『아주 친밀한 폭력: 여성주의와 가정폭력』(2016)(『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2001)의 개정판)은 가정폭력 영역에서 널리 인용되는 책이고,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2005[2013][2020])은 젠더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선생님은 평화연구자로서 군사안보 분야에도 학문적 개입을 지속해왔어요. 여성학과 평화학을 아우르며 연구해 온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희진: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제가 오늘 하는 말이나 입장이 여성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하는

* 여성학 박사. 평화연구자. tobrazil@naver.com

** 사회학 박사. 탈분단 문화, 북한 사회 연구자. kksocio@kyungnam.ac.kr

평화 담론이 여성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제 개인의 위치에서 부분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여성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정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인정 투쟁이요, 엄마에 대한 인정 투쟁이자,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서의 인정 투쟁의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게 글로 막 뿜어져 나왔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은 검열 기제 때문에 글이 안 써지기도 해요.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을 조각화(彫刻化)해야 하잖아요. 정말 정확하고 세밀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남성 문화만 염두에 두면 되었지만 이제는 여성주의자들과도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분명 논쟁이 될 것이 보이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글을 쓰려고 하니 자꾸 자신을 검열하게 되기도 해요. 말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무슨 이유에서건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저를 보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요.

여성주의적 인식론:

비가시화된 것의 가시화와 지식의 상대화

김성경: 선생님의 글을 보면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독특한 사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서 그것이 진영이 되었건 입장이 되었건 서로 양분되어 첨예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양쪽 모두가 아닌 프레임 밖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질문을 던지는 식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여성학계나 평화학 내부에서도 선생님의 문제 제기를 불편하게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희진: 사실 전 어떤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논쟁할 때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틀 밖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람

들은 제가 여성학계나 진보적 지식인들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에 약간 다른 의견을 보조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의 입장은 그냥 다른 거예요. “경계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전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밖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유의 계기는 역시 여성학 때문이었어요. 여성학을 접하고 세상에 비가시화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절감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어요.

김성경: 현장의 경험도 있으시지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상근자로 일했던 경험은 선생님의 가정폭력 연구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진: 비가시화된 것을 마주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두 사건을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일하면서 가정폭력을 접하게 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군 기지촌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윤금이 사건이었어요. 윤금이씨랑 저랑 또래였던 겁니다. 그때 윤금리와 제가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요. 윤금리와 비슷한 집안에 태어나 그런 삶의 경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나도 똑같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게 사실 다 연결된 것인데요. 그만큼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끝없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버틀러가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주장했던 것처럼요. 그런 맥락에서 전 사실 채식주의자다, 맑스주의자다, 여성주의자다, 평화주의자다, 이런 식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일종의 부분적인 관점이지 정체성도 아니고 나를 규정짓는 전부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냥 그러한 행동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진영에 속하지도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전 ‘우리’라는 개념도 없어요. 우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순간적 관계성들이 만들어지는 것뿐이지요.

전쟁과 평화라는 쌍생아

김성경: 이번에는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선생님께서 “평화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라고 쓰신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정희진 2014, “분노의 당파성과 치유의 정치학” 『안과 밖』 37호, 영미문학연구회). 폭력은 권력의 문제이며, 평화는 “6자회담에서 힐링”까지 복잡하며 각 주체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한국 사회에서 사실 평화만큼 복잡한 의미망을 지닌 개념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평화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언어라고 취급받기도 하고, “가짜 평화”라는 구분법이 등장하면서 진위를 가리려는 분위기도 등장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래된 격언이 여전히 군사전문가 및 정치인들의 입에서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한국 사회에서의 평화 담론의 낯작함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희진: 전 평화와 관련된 ‘서구’ 이론들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적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한 갈통의 적극적 평화와 수동적 평화와 같은 논의는 구조적인 억압과 폭력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압과 폭력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할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몇몇이 일상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즉 소수 중산층의 평화는 다수의 삶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 아래 지속되고 있어요. 예컨대 기후 위기 담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인 『인류세에서 죽음을 배우다』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후 위기다, 아니다”는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지금은 이미 기후 위기 이후, 즉 인류 멸망 이후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희망이나 과학 혹은 기술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을 버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 대다수의 죽음과 고통 위에서 가능한 거지요. 전 평화와 전쟁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화와 전쟁은 다른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쌍생아로 공존하는 것이지요.

김성경: 평화와 전쟁이 서로 거울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

쟁의 반대로 평화를 사고하는 습성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지금의 정전체제를 두고서도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은 멈췄으니 평화로 해석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사유하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북쪽의 인민들이나 남한 내부에서도 분단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소수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군요.

정희진: 평화에 대해서 전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평화를 논할 때 북한을 얘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무엇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지요. 북한에 대한 타자화된 시선 자체가 이미 반평화이고…… 북한이 사실 엄청나게 멀게 느껴지는 상황이지 않아요. 문화심리적으로 일본의 교토나 미국의 뉴욕은 너무나도 가까운데 북한 사회는 불행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선거 때가 되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제3의 정당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북한이라는 상수를 두고 적대적 공생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양당 체제가 공고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평화라고 얘기할 때 뭔가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를 뜻하면서 여성성 혹은 중산층 문화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 같은 답론이 이런 거지요. 평화라는 것이 운동성이 사실상 소거된 상태로 상상되면서, 뭔가 불안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평화롭지 못한 열등한 상태로 의미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평화가 무엇이라는 질문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평화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평화라는 답론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평화라는 개념이 어떠한 주체를 만들고 어떤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지요.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지 따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평화라는 개념은 무서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平)은 평평하게 다스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화(和)는 합치다라는 의미이니, 다른 것을 평평하게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규격화한다는 뜻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해요. 이게 영어로는 pacify, 민사작전(民事作戰)에서 사용하는

평정하다와 같은 어원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에 의해 안정된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한 평화를 가리키는 영어가 피스(peace)인데, 그것이 또 평등을 뜻하는 equality와 공평의 의미인 equity와 같은 어원이에요. 라틴어로는 pax가 어원이고요. 이게 한자로는 汎으로 해석되는데 즉 전체를 묶어내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든다니. 그래서 전 평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현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안정한(영어로는 precarious) 상태가 정상이지 않나요? 평화라는 의미 자체에 이미 중산층 의식과 정체성이 깊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정적이면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우아함을 담보해야지만 평화로운 상태가 되니까요.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주국방’과 ‘식민지 남성성’

김성경: 선생님의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북한에 대한 거리감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지요. 적대감을 넘어서 무관심해진 것이 한국 사회의 일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이라는 이슈만으로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분단된 국가에서 북한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평화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정희진: 전 분단과 북한 문제로 인해 한국 사회 남성성이 식민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국방 담론에 관련해서 공부를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자주국방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국방이라는 것이 국가를 방어한다는 뜻이기에 이미 자주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데 굳이 자주국방이라고 개념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식민지 남성성(colonial masculinity)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국내나 가정에서가 아니라 외세를 대타자로 상정하는 남성성이지요. 사실 자주국방은 진보건 보수건 가리지 않고 강조되었는데, 특히 박정희와 노무현이 자주국방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수 쪽에서는 미국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응한다는 자주국방이고, 진보

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학 논의에서는 박정희와 노무현 모두 민족주의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한 둘의 자주국방에 관련된 논리는 비슷해요. 다만 박정희 시기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국력이 약해서 미국을 통한 자주국방을 상상해야 했지만, 노무현 시기에는 남한의 국력이 강해져서 이제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강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논리도 이상해요. 미국을 이용한다는 것이요. 사실 한국은 언제나 미국보다 약했는데, 약자가 강자를 이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려면 자주국방이라는 것의 내용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성경: 식민지 남성성은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 논문은 반미 문학에 내포한 식민지 남성성 분석은 분단 국가에서 구축된 남성성이 외부의 권력을 타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군 기지촌 여성 문제에서 식민지 남성성으로 연구 주제가 조금씩 이동한 것 이면에 어떠한 사유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었어요.

정희찬: 한국 사회에서 여성문제나 생태 문제는 항상 사소한 것,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어요. 사실 이것은 식민과 분단이라는 맥락에서 구축된 독특한 젠더 구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식민지 남성성이라고 했을 때 식민지 근대성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의 식민지 남성성이란 젠더는 가족이나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축되는 것인데, 남한의 남성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젠더가 구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외부는 미국, 일본, 북한 등이지요. 특히 자주국방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라는 대타자를 두고 젠더 구조가 구축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강국과의 관계에서는 남한의 남성성은 여성의 자리에 존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힘 있는 형이고요. 물론 과거에 북한이 힘이 있었을 때는 남한은 약한 동생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요. 한국의 남성성이라는 것은 로컬이나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과 생태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해요. 남한의 남성성이라는 것이 북한을 이겨야 하고, 미국을 이용하건 아니면 반도체와 K-pop 같은 것을 들이밀어서 조금이라도 경쟁해서 앞서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구축되면서 사회가 철저하게 발전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거지요.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데 젠더 문제나 생태 문제는 다 사소한 것으로 취급돼요. 한국의 남성 문화, 한국의 식민지 남성성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예요. 흥미롭게도 진보 진영에서 이런 모습이 더욱 강하게 보여요. 하긴 한국의 보수는 이데올로기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강한 진보 진영에서 더더욱 자주니, 평화니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평화는 없다

김성경: 마음의 평화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진: 비폭력 대화가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평화롭게 대화한다는 그런 논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폭력(violence)이라는 것과 폭력적(violent)이라는 것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의 대화는 인식론적으로 격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맞장구치는 것이 비폭력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면 폭력과 비폭력이라는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야 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것들이 비폭력이 아닌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겠지요. 대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비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대답이 실리는 저널 이름이 피시즈잖아요. 그런데 전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다양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양성이라는 게 탈정치화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평화도 있고, 나의 평화도 있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남북 정전협정도 있고. 하지만 각각이 다 논의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같은 수위에서 논의할 수 있어요? 웬디 브라운의 『관용』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것은 탈정치적이

고 수준이 다른 것을 뒤섞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평화라는 말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라는 말을 머리에 두면 계속해서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나 폭력을 없애면 평화가 가능하다는 오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명 그 자체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에서 핵무기가 과연 인류에게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잖아요. 핵무기를 만들었던 때는 나치라는 절대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두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서 인류는 더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지금 그 때 핵폭탄을 만든 것이 혹은 다이내마이트를 만든 것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지요. 그건 문명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겠지요.

김성경: 앞서 선생님께서 평화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곱씹게 됩니다. 평화가 전쟁 혹은 폭력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평화라는 개념과 언어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알리바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컨대 문제인 정부시기에 평화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였는데요, 정작 이 시기에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가 극단화되었어요. 정치 진영 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이 더욱 첨예해졌으니까요. 또한 남북 사이의 평화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몇몇 이미지로 박제화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유보적인 국민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용이나 실천 없이 평화라는 개념만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쟁 같은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는 꿈틀거림 같은 것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요.

정희진: 평화가 없다면 그것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추구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전 그것이 타자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핵심이지요. 물론 타자화하지 않으려면 일단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또한 자신의 언어 권력을 상기해야 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해야겠지요. 정말이지

전쟁 같은 ‘격렬한’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타자화라는 것이 상대를 임의대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도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만들어진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구성된 것인지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를 규정지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이들, 여기서는 자연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회귀해야 하잖아요. 영어로는 reflexive인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바뀌내야 하는데, 이는 결코 평화롭지 않지요. 그 과정은 정말 치열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과정이지요.

타자화의 극단적 사례는 바로 북한 아니요? 북한에 대해서는 망상에 가까운 타자화를 하고 있지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예컨대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혹은 개인적 수준에서 주변인들을 타자화하는 것 모두가 다 같은 수준에서 평화롭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일원론적인 접근, 그러니까 피아의 구분이 없는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시각이 중요하지요. 사실 전 여성주의가 탈식민주의에 가장 크게 한 기여는 이분법을 해체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라는 이분법이 가부장제가 구축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비판한 것이 여성주의니까요. 지금까지 탈식민주의에서 강조했던 친밀한 적, 그러니까 우리 내부가 사실은 혼종적임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여성주의가 강조하는 남녀 이분법의 해체는 분명 탈식민주의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또한 탈식민주의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피아 구분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를 일원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근본적으로 생태주의나 페미니즘이 평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돌봄 이론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이 단절이나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유기체로 사고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인식론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것은 이분법(A & not A)이나 이항 대립 같은 것을 벗어나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평화가 ‘전쟁 없는 상태’로 설명될 경우 평화는 Not A로 설명되고, 전쟁에 의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김성경: 전쟁의 반대향으로 평화를 위치할 때 상상력의 빈곤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 지금까지 분단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감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평화를 전쟁이 아닌 상태 혹은 폭력 없는 상태로 정의 내리는 한 그것의 실천 방식이나 형태를 협소하게 ‘타자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남한에서 평화는 분단과 북한이라는 영역에서 논의되거나 마음의 평화와 같은 방식으로밖에 해석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수준의 평화도 감각되기 어려운데, 마음의 평화라는 일종의 수동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는 참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해 보니 힐링 담론 등이 유행하다가 최근에 캠핑 열풍 같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겠어요. 도심을 떠나 홀로 캠핑을 하면서 불명, 물명을 한다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으로 소비되는 것이고요.

정희진: 한국 사회의 맹렬한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서 평화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만 고착되고 있어요. 최근에 전쟁 위기라는 경고가 나와도 평화 담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한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북한에 비해 경제력이나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생각했을 때 전쟁이 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나더라도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국가 안보 분야를 시작했을 때 국방대학원에서 수업을 청강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상당히 보수적인 군인 출신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는 그분이 자신들의 후배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예전에는 군인이라는 지위가 결혼 시장에 그리 나쁘지 않았다면, 이제 군인은 결혼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위가 떨어졌다는 푸념을 하더라고요. 군대라는 권위적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현시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군사 안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그 교수의 지적이었어요.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을 수업시간에 계속했거든요.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만큼 담론의 지위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국가 안보 그 자체에 대해서 점점 더 연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마음의 평화에 관련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음의 안식이라는 것이 자극히 자본주의적 방식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지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교육과 사랑이 근심의 최후의 영역인데, 거기까지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결국 돈이 평화가 되었지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오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가부장제를 폐퇴시켰잖아요. 처음에는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를 이용했지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제는 가부장제를 부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지요. 여성들이 개인화되었으니까요.

언어의 불안정성과 전복의 가능성

김성경: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미야마 이치로 선생님 책 중에서 『전장의 기억』과 『유착의 사상』 등은 인상 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서 전쟁 체험의 증언과 기억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에서 언어의 불안정성(도미야마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이야기의 불안정성”)에서 국민국가 서사에서 독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천착하여 연구하시는 (민족) 국가와 여성, 증언과 체험, 언어의 불안정성 등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언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생님이 요즘 고민하시는 사례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진: 언어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계이자 가능성이잖아요. 그건 일단 언어가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당사자의 언어 혹은 증언이라는 것도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요. 국민국가의 서사 밖에 존재하는 언어들의 맥락과 역사성 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4·3 생존자의 이야기인데요. 4·3 70주년이 되었을 때 피해 유가족 남성이 아홉 살 때 경험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열한 살, 열다섯 살

형 두 명이 총살당해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일제부터 해방이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 기뻐할 일이지만 제주 사람인 자신에게는 4·3이었다고. 제노사이드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 해방되지 않았다면 미군이 안 왔을 것이고 이승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4·3 유가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성에 따라 역사를 전혀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만큼 역사는 정합적이지 않고, 그것을 서사화하는 언어도 균질적이지 않지요.

문제는 여기서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인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한국 사회가 평화를 위한 여러 투쟁들을 경험했잖아요. 강정, 밀양, 성주, 사당동 빈민 투쟁 같은 사례를 잘 보면 결국 남성들은 타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요. 또한 국가와 남자들이 타협하기 때문에 그 싸움의 끝에서 여성들은 소외되곤 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엄청난 자각과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지요. 많은 증언집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아마도 그것이 바로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요.

김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위치성이라는 것이 국가나 보편적 주제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역사를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불안정한 언어의 발화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떤 경험이나 실천의 위계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어요. 예컨대 평화라는 의미는 상당히 켄터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안, 안식, 수동적, 비폭력 등으로 해석되는 평화는 당연히 여성들 혹은 여성성과 연계되어서 해석되는 것이지요. 전쟁은 남성들의 힘과 권력의 문제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고요.

정희진: 제 생각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담론 체계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이라는 이분법 구조로 해석되고 있어요. 제 수업 중에 인상적인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여성학이나 평화학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깊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나면 자기는 정의와 학생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성학이나 평화학을 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학생이 생각할 때 평화학은 뭔가 순진해 보이고, 권력에서 밀려나는 듯한, 더 나아가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꺾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평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요. 이게 마치 돌봄 같은 거예요. 돌봄 노동의 가치와 돌봄을 실제로 하는 이들은 사실 별개임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다 뭉뚱그려 버려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돌봄 노동을 여성들의 것으로 치부하고, 여성들은 지금까지 억지로 해온 것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돌봄을 등한시해요. 그만큼 돌봄 가치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거지요. 평화라는 가치도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네요. 평화의 의미망이 젠더화되면서 평화 담론 자체가 확산되기도 어렵고, 평화라는 가치가 마치 권력에서 밀려난 루저들의 외침 정도로 폄하되는 것이지요.

민족주의의 성별분업: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트랜스내셔널 연대

김성경: 기지춘 여성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문제의식은 최근에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연구로 집중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를 둘러싼 담론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문제시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경유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연구와 운동이 한국 사회의 여성운동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운동 진영 내부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희진: 지금까지 군 ‘위안부’ 관련 운동이나 담론은 민족주의와 여성주의가 어느 정도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민족의 이름으로 군 ‘위안부’를 소환하는 운동이 여성주의가 제기하는 국가 폭력이나 성매매 문제 등과 긴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전 이 구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 ‘위안부’ 운동은 민족주의의 성별 분업이었어요. 우리가 성별 분업할 때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클 때가 있잖아요. 일중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의 이론적 근거는 군 ‘위안부’ 운동과 기지촌 운동이 사실 같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운동의 중심 세력들, 그러니까 주체들이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윤금이 사건에 대해서는 운동 주체들이 강제성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기지촌 여성으로 살아야 했던 윤금이의 삶이 자신의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주변의 강제 때문이었는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강제성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 ‘위안부’와 조선 ‘위안부’는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욱 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사실 트랜스내셔널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트랜스내셔널한 연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자국의 군 ‘위안부’ 문제를 외부와 연대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여성으로서 피식민지 여성들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일본의 군 ‘위안부’와 조선의 군 ‘위안부’가 사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지요. 아니 일본 사회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도 반성을 해야 하지요. 일본의 군 ‘위안부’는 공창이니까 강제성의 정도가 조선 여성들과는 다르다는 식의 논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 당시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에 남아서 매춘을 하는 것보다 전쟁터가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몰려 있던 이들이었어요. 제 말은 일본의 군 ‘위안부’와 조선의 군 ‘위안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한 연대를 상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희망 없음을 직시하기

김성경: 개인적으로는 탈냉전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교류를 통한 변화)이나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라는 두 개의 경쟁적 담론에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

각합니다. 그만큼 전혀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성주의적 평화 담론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체계를 해체하는 데 여성주의적 평화 담론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의 대안을 만들 어내는 작업을 어떻게 진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진: 여기서 핵심은 남북 사이의 적대적 공존이 완전히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고 나서 적대적 공존을 더욱 활용하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랑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도대체 무엇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허울뿐인 사회주의도 아닐 것이고.

김성경: 반미로 연대하는 것 아닐까요?

정희진: 반미요? 지금 시대는 솔직히 팩스 아메리카잖아요. 질문을 다시 해보면 이것은 이미 상수라는 거지요. 미국 패권이라는 상수. 그리고 다른 상수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지요. 이 두 상수 아래서 남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적대적 공존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북한은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면서 핵을 통해서 자신의 내부를 결속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상수를 고려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지만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 연대라든가 아니면 인류세 시대에 죽음을 배우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지요. 자본주의가 멈춰야지만, 미국 패권이 해체되어야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 뭘겠어요. 한동안 트랜스내셔널에 우리가 주목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군 ‘위안부’ 문제로도 트랜스내셔널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과 주제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전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없다는 현실로부터 배움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성경: 남북 교류가 어렵지만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희망을 갖기 어렵지만 남북이 점차 교류를 하고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남북 사이에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이지요.

정희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교류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교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기후 위기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이토 고헤이 같은 학자는 텀블러 쓰고,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이런 것이 결국 만족감만 주고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회피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좀 더 발본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교류 이런 것으로 잠시 만족감이나 안도감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서동만 선생님의 연구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주장 중 하나가 한국에 돈이 넘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골프장 짓고, 아파트 짓고 환경 망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북한에 투자해서 인프라 지어주자고 그랬거든요. 사실 서동만 선생님 주장이 자본주의적 흡수 통일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전 그런 비판 프레임 자체가 좀 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투자받게 하고 일단 북한을 ‘재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가 건강해야 북한에게도 건강한 자본주의를 ‘이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한국 자본주의가 이식되면 결국 남북 모두가 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북한이라는 타자가 끊임없이 소환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통일을 해서 한쪽을 없애는 것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은 문제지만, 선거 때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소환되어 위력을 과시하는 상태는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김성경: 참으로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병폐가

심화될수록 분단을 극복하는 것도 평화를 상상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극단화된 자본주의 아래 젊은 층에서는 종말과 멸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선생님께 평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희진: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문제에 봉착했다고 봐요. 전 시민사회나 운동권이 한 사회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을 오히려 폐허 이후, 인류의 종말 이후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해요. 지금 세계는 대다수의 죽음과 위기 위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그만 두고 죽음을 직시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김성경: 선생님은 오늘 죽음과 절망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애써 외면했던 평화의 (불)가능성을 비로소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평화라는 큰 담론이나 지향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주변을 타자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누리는 일상의 평안함이 어떠한 희생 아래 가능했는지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진: 평화가 어려운 이유는 발전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생태주의와 가깝지요. 두 가지 사유 모두 대상화, 타자화를 거부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평화는 ‘가난’에서 오지요. 스페인이 코스타리카가 자원이 없어서 식민 침탈을 포기한 것처럼요. 일상적이든 구조적이든, 물질주의, 패권주의적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에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지만 구조적 폭력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모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진은 여성학/평화학 연구자이다.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전문위원이고,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대표 저서로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교양인, 2023), 『페미니즘의 도전』(2005[2013][2020]), 『아주 친밀한 폭력』(교양인, 2016), 『성폭력을 다시 쓴다』(한울아카데미, 2003),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아카데미, 1999) 등 11권의 단독 저서와 70여권의 공저, 편저가 있다.

김성경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이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탈/분단체제의 문화적 문제를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창비, 2020),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창비, 2023) 등이 있다.